

4/2/23

설교 제목: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스가랴 1 장 18 절 - 2 장 13 절

네 뿔과 대장장이 네 명

(속 1:18)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속 1:19)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흠뜨린 뿔이니라 **절관주** 스 4:1

(속 1:20) 그 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속 1:21)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흠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흠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절관주** 시 75:4, 애 2:17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 가지 환상 중 두 번째 환상으로 네 개의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환상을 통해 첫 번째 환상에서 말씀하신 열방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는 열방을 당신이 친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열방에게 고난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속 1: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곧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버리고 당신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당신도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선민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면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겠다고 하십니다.

(슥 1:16)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슥 1:17)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가 되기 직전까지도 자신들은 선민이므로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결코 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고 성읍이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을 위로하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간의 선민 관계 회복을 보여 주신 것이라면,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 주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이 시온을 위로하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먼저 네 뿔을 봅니다.

(속 1:18)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속 1:19)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흠뜨린 뿔이니라

네 뿔은 사방의 권세자들을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들 앗수르, 애굽,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 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보다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스가라는 대장장이 네 명을 보니다.

(속 1:20) 그 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속 1:21)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흠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흠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네 대장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네 뿔들 곧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심판의 도구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 를 가리키는 동시에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 세력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가리킵니다.

‘머리를 들지 못한다’는 것은 철저한 패배와 멸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네 뿔들이 유다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유다가 이 뿔들로 인해서 철저히 굴욕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네 뿔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대장장이들이 와서 네 뿔들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심판할 것입니다.

네 뿔들은 이들로 인해서 큰 두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아예 제거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뿔을 제거하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네 뿔을 제거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고통을 안겨 주는 이방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열국들이 하나님이 일으킨 세력에 의해 모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결국 이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장 악한 세력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종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깝게는 바사에 의해 열강이 정복당함으로써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방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바사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사 45:1)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이방 나라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바사의 왕들 곧 고레스나 다리오 왕이 뿔을 깨뜨릴 대장장이로 여호와의 심판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방과 구원을 이끌지언정 궁극적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메시아적 사역을 성취하지는 못합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된 자들을 징계하는 또 다른 몽둥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에 대한 환상 중 넷째 짐승과 뿔들과 인자의 강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환상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단 7:7)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의 제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무서운 힘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잔혹합니다.

열 뿔은 로마 제국을 기점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 태동될 수많은 왕이나 제국들 가리킵니다.

그런데 열 뿔들 사이에 작은 뿔이 나타납니다.

(단 7: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큰 말이란 오만한 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한 악한 의도에서 기인된 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입니다.

(단 7:9)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단 7: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리스도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넷째 짐승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단 7:11) 그 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단 7:12)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로마 제국과 이어서 태동된 적그리스도 출현 이전의 제국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엄중성과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남은 짐승은 넷째 짐승에 앞서 언급된 세 짐승들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말의 의미는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의 심판 이후까지 살아남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단지 그 멸망의 정도에 있어서 작은 뿔보다 심하지 않으며 기간도 순간적인 작은 뿔의 멸망에 비해 비교적 연장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집니다.

(단 7:13)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단 7: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비록 당장은 뿔들로 상징되는 여러 제국들의 왕들이 출현하여 세상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뿔들의 세력은 인자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인자가 뿔들의 세력을 제압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인자 곧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의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시련과 환난을 안겨 주었던 뿔로 상징되는 열방의 제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대장장이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듯 모든 악의 세력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을지언정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뿔들을 깨뜨리실 진정한 대장장이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장장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결국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당장은 원수들로 인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대장장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와의 치열한 사투를 벌이신 주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사탄 마귀와 싸우시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능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대장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믿고 얻은 승리를 행사하며 사십시요!

고개를 들고 가슴을 활짝 펴십시요!

세상 앞에서 쪼그라들거나 비굴하지 말고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